

안세영 '두 고개' 넘어야 진짜 지존

〈세계선수권·아시아게임〉

배드민턴 단식 세계 1위 올라... 방수현 이후 27년 만 '빅4' 중 압도적 기량... 8월 세계선수권·9월 AG '청신호'

현재 세계 배드민턴 여자 단식은 4강 구도로 짜여 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사진)을 중심으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 천위페이(중국), 타이쯔잉(대만)이 '빅4'다.

앞치라뒤치라하는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안세영은 야마구치를 제치고 세계랭킹 1위에 올라 한발 앞서기 시작했다. 안세영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랭킹 포인트 10만3914점을 쌓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10만1917점)를 제치고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안세영은 세계랭킹 포인트를 처음 획득한 2018년 2월(1335위) 이후 5년 5개월 만에 세계 최강자로 우뚝 섰다. 우승 확률이 무려 63.6%나 된다.

안세영은 인도오픈-인도네시아마스터스 우승, 말레이시아오픈 준우승으로 2023년 패조의 출발을 알린 뒤 3월에는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을 제패하며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4월 아시아게임선수권과 5월 수디르만컵에선 연속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삼킨 안세영은 6월 태국오픈과 싱가포르

르오픈을 연속 석권해 다시 기세를 끌어올렸다.

하반기 첫 대회인 지난달 23일 코리아오픈에서 생애 첫 대회 2연패에 성공했고 지난달 30일 일본오픈 우승으로 세계 1위마저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야마구치, 천위페이, 타이쯔잉을 상대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야마구치와 통산 전적은 아직 8승 12패로 밀리지만 올해엔 3승 2패로 앞선다. 올해 국제대회 성적도 안세영이 야마구치(우승 4차례, 준우승 2차례)에게 크게 앞선다. 또 작년까지 1승(8패)밖에 거두지 못해 꺾꽂이 못하던 천위페이에게는 올해 4승(2패)을 뺏았다. 원래 우위를 보였던 타이쯔잉에겐 올해 5승(1패)을 거둬 통산 전적을 8승 2패로 늘렸다.

이제 안세영의 금빛 스페셜은 이달 세계 개인선수권대회와 9월 항저우 아시아 게임을 향한다. 아시아게임은 야마구치, 천위페이, 타이쯔잉 등 '빅4'가 모두 출전하는 만큼 사실상 올림픽에 준하는 의미를 갖는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요넥스

프로당구 팀 리그 새 시즌 막 오른다

내일부터 PBA 스타디움서

프로당구 PBA 팀 리그가 다양한 변화와 함께 막을 올린다.

PBA는 3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웰컴저축은행 PBA 팀 리그 2023-24 1라운드를 시작으로 5개 라운드와 포스트시즌까지 약 7개월의 대장정에 나선다.

이번 시즌 가장 큰 변화는 신생팀 합류다. 하이원리조트 위너스와 에스와이 바자르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총 9개 팀 체제가 됐고 종전 라운드당 7일(28경기)에서 9일(36경기)로 더 많은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시즌부터 경기 규정도 바뀐다. 승차제 방식으로 진행한 리그 순위 규정이 승점제로 변경한다.

승리팀은 3점, 패배팀은 0점이며, 폴셋(게트) 경기 시에는 승리팀이 2점을 얻고, 패배팀도 1점을 가져간다.

포스트시즌 진출 방식도 종전 전후기리그 우승-준우승에 오른 4개 팀이 펼치던 방식에서 5개 라운드별 우승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챔피언을 가린다. 라운드별 우승팀이 결철 경우에는 정규리그 종합 순위 차순위팀이 포스트시즌에 오른다.

포스트시즌 대진은 정규리그 종합 순위 기준으로 하고 지난 시즌까지 진행했던 상위팀 상승 어드밴티지는 폐지됐다.

개막일인 3일 낮 12시30분 지난 시즌 포스트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만났던 블루원리조트와 웰컴저축은행이 개막전을 치르고, 하나카드-에스와이(오후 3시30분), 휴온스-SK렌터카(오후 6시30분), 하이원리조트-크라운해태(오후 11시)가 경기를 치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프로당구 블루원리조트 팀원들이 지난 시즌 팀 리그에서 우승한 뒤 환호하고 있다. PBA

고진영 여자 골프 세계 랭킹 2위로 밀려

넬리 코르다 2개월 만에 1위 자리 되찾아



미국 여자 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약중인 태극 남자의 에이스인 고진영이 여자 골프 세계 랭킹 2위로 한 계단 내려섰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 따르면 지난주 1위였던 고진영이 랭킹 포인트 7.54점으로 2위가 됐고, 2

위였던 넬리 코르다(미국)가 7.75점을 기록해 1위로 올라섰다.

지난달 31일 끝난 LPGA투어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고진영이 공동 20위로 부진한 반면 코르다는 공동 9위로 선전하



고진영 AFP-연합뉴스

면서 1.2위 순위가 역전됐다. 지난주까지 고진영은 7.74점, 코르다는 7.51점으로 0.23점 앞서 있었다.

올 시즌 2승을 거둔 고진

영은 올해 5월 말부터 2개월 넘게 연달아 1위를 지켰고, 특히 개인 통산 163주간 1위를 달리며 이 부문 신기록을 수립했다. 종전 개인 통산 최장기간 여자 골프 세계 1위 기록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2010년에 세운 158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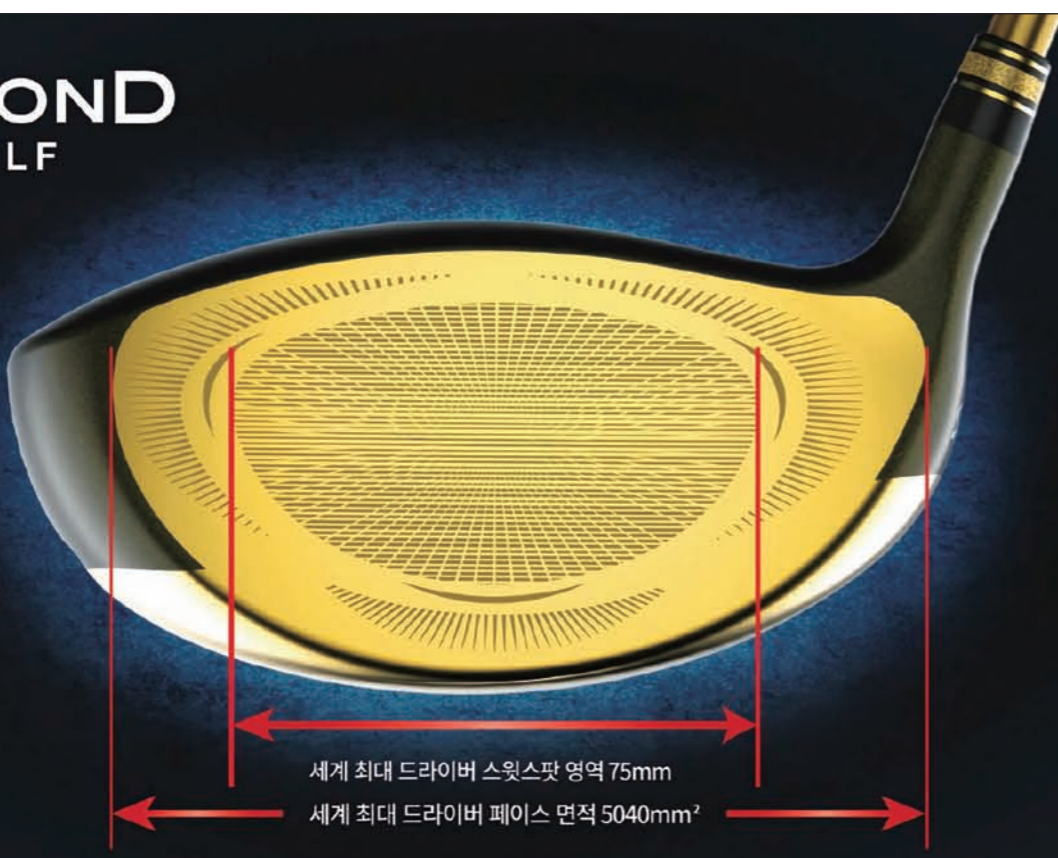
코르다는 5월 말 1위를 고진영에게 내줬다가 약 2개월 만에 다시 1위에 복귀했다.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3위를 지켰고,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자 셀린 부티

에(프랑스)가 15위에서 4위로 경종 뛰었다. 5위는 인뤄닝(중국)이다. 김효주가 8위에서 11위로 밀리면서 10위 내 한국 선수는 2위 고진영이 유일하다.

고진영은 3일부터 나흘간 제주시 블랙스톤 제주(파72-6626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10억 원)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 고진영이 KLPGA투어에 출전하는 것은 2021년 10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후 약 1년10개월 만이다.

삼다수는 고진영의 서브 스폰서이기도 하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